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동운동의 모색(토론문)

이종탁(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1. 삶의 방식을 바꿔야 가능하다

(1) 총체적 노동운동으로

노동자들의 삶.

가부장적 사회 구조/체제 속에서 삶의 질곡을 감당해야 하는 남성 노동자.

노동운동 혹은 노동조합들은 ‘한 쪽 측면’에서 편중된 모습.

소득과 소비의 두 차원 중에서 소득과 연관된 임금 문제는 노동조합을 통해서 그리고 회사의 성장과 동반하며 ‘올리는 방법’과 시간외 노동과 주말 노동 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방식을 선택.

이는 ‘일면적 노동운동/노동자’를 형성하고 고착화함.

더 많이 일을 하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남성이 짊어진 가부장 이데올로기가 강력한 동력.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무감이 초과노동을 감내하고 더 많은 노동을 선택하는 배경.

실제로 미혼이거나 젊은 층의 경우 주말 특근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음.

즉, 대공장 남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여가와 휴식보다는 가족 부양을 위해 더 많은 일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음.

이런 상황/삶의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더 많은 임금을 위해 더 많이 일하는 양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즉,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은 이제부터라도 그동안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소비의 영역, 삶과 생활의 영역에 대한 적극적 자기 모색이 필요.

엄청난 가계 부채의 요인이 되는 주택 문제와 중간층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국민연금으로는 절대 노후를 보장받을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으로는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인식. 그래서 한편으로는 평생 대출을 갚아야 하고, 사보험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현실.

이런 현실 속에서 임금을 줄이거나 여가와 휴일을 늘리자는 제안은 ‘맞는 말’이지만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되는 경우가 많다.

더 적게 일을 하려면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들어도 먹고 살면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노후를 예비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동조합들은 ‘함께 살자’는 차원만이 아니라 ‘생활비 절반’ 등 구체적 삶의 요구를 내걸고 그것을 실현시킬 사회 구조/체제를 만드는 일에 상당한 공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면적 노동운동을 총체적 노동운동으로 확장, 재편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을 만들어내는 출발점.

(2) 잠들지 않는 사회를 바꾸기 위한 사회적 규제를

고용노동부에서 조사하고 의욕을 보였던 시간외 노동에 대한 접근이나 금속노조 및 자동차 사업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는 ‘주40시간 노동제’를 전제로 함.

기업 단위를 모델로 한 노동시간 단축 방식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접근과 모색을 병행해야 한다.

무엇보다 실제적으로 주40시간 노동을 실현하려면 24시간 생활/삶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 어느 대선 후보자가 제시한 것처럼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하려면 그 누군가의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삶과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유럽에 갔다 온 사람들은 술집이 너무 일찍 문을 닫고 밤늦게까지 영업하는 가게가 없어서 불편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밤새 먹고 노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더욱 그렇다.

24시간 잠들지 않은 대도시 체제를 ‘잠자는 도시’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저녁이 있는 삶’이 어느 누구에게는 또 다른 초과노동,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담합의 틀을 무너뜨려야 할 때

(1) ‘3무’(無)가 아니라 ‘3더’(More) 운동으로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하면서 현장조직들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강도 강화 없는’, ‘고용 불안 없는’ 변화를 주문했다. 하지만 어떤 집행부도 그런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더 많은 임금을 위해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물량에 환호하고 그것이 고용보장의 전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물량 - 고용 - 임금’에 관한 노사담합이 가능했다. 이런 담합 체제 속에서 3무의 요구는 ‘계급적’이라기보다 ‘경제주의적 담합’을 유지하기 위한 과격한 언사에 불과하다.

물량과 임금의 교환 구조 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는 결국 생산의 유연성과 고용의 안정성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해야 한다.

생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해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과정에서 생산물량을 유지하려면 생산을 좀 더 효율화하고 집약화 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이 틀/교환 체제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간연속 2교대제 틀을 무너뜨린다. 이 틀을 전제로 할 때,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은 생산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와 결정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휴가와 휴일을 현장의 요구로 만들어야 한다. 고령화한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한 배려와 더불어 삶의 방식과 체제를 바꾸는 일에 대해 현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고용 확대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규직 채용이 정체되고 비정규직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고용구조를 깨뜨리고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2) 3교대제도 검토해야

주간연속 2교대제는 심야노동 폐지를 전제로 한다. 야간노동이 노동자 수명을 단축하고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 속에서 고령화한 자동차 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다.

하지만 심야노동 폐지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결과적으로 생산성 향상의 논리가 지나치게 확장하고 노동시간 단축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제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말특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면 초과노동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물량을 유지하되 지나친 생산성 향상과 노동강도 강화로 귀결되지 않으려면 심야노동 폐지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고용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3교대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 이제 행동으로 말해야 할 때

(1) 재벌 개혁과 결합하는 노동시간 단축

노사 간 교섭을 축으로 진행된 주간연속 2교대제 논의는 이제 한계에 다다른 상태. 노동조합은 임금에 대한 강력한 집착을 내려놓고 지난 10여 년 동안 현대자동차 그룹을 중심으로 막대한 초과이윤을 축적한 자본을 향한 본격적으로 공세로 돌파구를 열어야 함.

노동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함.

지금까지는 물량을 유지하는 대가로 임금을 유지하는 타협이 논의의 근간을 형성했음.

그러면서도 설비개선 및 UPH UP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함.

여기에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담아내려면 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고용 확대와 부품협력업체 지원 등이 결합하면 그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임).

비정규 활용과 모듈화, 내부 거래 및 단가 인하 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자본을 향해 획기적 분배 확대를 과감하게 요구하면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만들어야 함.

(2) 행동하는 실천을 보여줄 때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가 주간연속 2교대제를 논의한 것이 벌써 7년째. 2008년과 2010년에 노사가 합의한 내용이 있지만 아직도 실현 가능성은 모호한 상태.

사용자들은 생산과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상황에서 주간연속 2교대제를 포함한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에 나서야 할 절박한 이유가 없음.

결국 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선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의지가 중요한 관건.